

개인의 성격특성과 생활사건이 음주동기에 미치는 영향

탁진국¹⁾

광운대학교 산업심리학과

본 연구는 개인의 성격특성과 생활사건이 음주동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성격특성은 A유형성격과 5요인(big five) 성격요인(외향성, 정서적 안정성, 호감성, 성실성, 이지성)으로 측정하였고, 생활사건은 대학생환을 하면서 갈등을 겪을 수 있는 17개의 생활사건을 측정하였다. 음주동기는 사고, 사고의 확장, 정서적 대처, 기분의 고양, 습관 및 동조의 6개 요인으로 측정하였다. 400명의 대학생으로부터 얻은 자료를 먼저 상관분석한 결과, 성격특성에 따라 술을 마시는 이유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사건 변인 가운데 음주동기 요인과 관련이 깊게 나타난 변인은 학과적응, 부모관계, 이성문제, 그리고 흡연문제였다. 특히 흡연문제는 음주동기 전체 및 각 요인과의 상관 정도가 가장 강하게 나타났다. 성격특성과 생활사건을 예언변인으로 두고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성격특성과 생활사건 변인 모두 음주동기 요인을 설명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예언 변인 가운데 흡연문제가 음주동기 요인을 설명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성격특성이 음주동기를 설명하는 부분 이상의 의미있는 추가변량을 생활사건이 설명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든 6개 음주동기 요인에서 생활사건이 음주동기 요인의 추가 변량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생활사건이 음주동기를 설명함에 있어서 성격특성 변인 못지 않게 중요함을 밝혀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연구결과의 시사점과 제한점, 그리고 미래의 연구에 대한 제언이 논의되었다.

사람들이 술을 마시는 동기는 다양하다. 기분이 좋아서 술을 마시기도 하고 다른 사람과 어울리기 위해서 마시기도 하며, 단지 습관 때문에 마시기도 한다. 술을 마시는 동기가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음주동기가 음주량과 음주의 결과 나타나는 음주문제와 같은 음주행동을 설명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Cox & Klinger, 1988). 음주동기가 음주행동과 관련이 있다는 결과는 여러 연구에서 보고된 바 있다(신행우, 1998; Cooper, 1994; Cooper, Frone,

Russell, & Mudar, 1995; Cooper, Russell, Skinner, & Windle, 1992; Cutter, & O'Farrell, 1984; Farbor, Khavari, & Douglass, 1980).

음주동기의 중요성 때문에 음주동기를 측정하는 척도를 개발하기 위한 일련의 연구가 보고되었다. 음주동기를 측정하는데 있어서 사용된 척도는 음주동기 요인을 밝히는데 초점을 두었다. 처음에는 부정적 정서를 회피하거나 조절하기 위한 대처동기와 사고 및 친선을 위한 사고동기의 두 가지 음주동기에 초점을 두었다(Farbor, Khavari, & Douglass, 1980). Cooper 등(1992)은 이 두 가지 요인 이외에 제 3의 음주동기 요인으로서 긍정적 정서를 고양시키는 고양 동기

1 교신저자 : 탁진국, 서울시 노원구 월계1동 광운대학교 산업심리학과, 139-701. Email: tjook@daisy.kwangwoon.ac.kr

(enhancement motive)를 포함하는 3요인 음주동기 모형을 제시하였으며,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얻은 자료를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 3요인 모형이 지지되었다. Stewart, Zeitlin, 및 Samoluk(1996)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음주동기 3요인 모형을 검증한 결과 단일 차원이나 2요인 모형보다 3요인 모형이 더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Cox와 Klinger(1988)는 위에서 기술한 3개 요인 이외에 사회적 비난이나 거부를 피하기 위해 술을 마시는 동조 요인을 추가하여 4개의 음주동기 요인을 구분하였다. Cooper(1994)는 Cox와 Klinger의 음주동기 분류를 토대로 4요인으로 구성된 음주동기 척도를 개발하고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4요인 모형의 타당도를 입증하였다. 최근 Simons, Correia, Carey 및 Borsari(1998)는 Cooper의 4요인 음주동기 척도에 자신의 지각과 인식 경험의 증대를 의미하는 확장(expansion)요인을 추가한 5요인 척도를 개발하여 대학생에게 실시한 뒤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5요인 모형이 지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는 박영숙, 표미자 및 김정선(1995)이 음주이유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정서적 음주동기와 사회적응적 음주동기 요인을 추출하였다. 신행우(1998)는 Cox와 Klinger(1988)의 4요인 모형을 토대로 음주동기 문항을 개발한 후,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검증한 결과, 대처, 사교, 고양 및 동조의 4요인 모형의 적합성이 지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 가지 음주동기 요인 가운데 사교동기의 평균이 가장 높았고 고양동기의 평균이 가장 낮게 나타나 국내의 경우 사교동기의 비중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정과 탁진국(1998)은 Cooper(1994)의 4요인 음주동기 척도에 Simons 등(1998)이 추가한 확장 요인을 포함시키고, Newcomb, Chou, Bentler 및 Huba(1988)의 약물 연구에 포함된 중독 요인을 습관 때문에 술을 마시는 습관 요인으로 수정하여 음주동기 척도를 완성하였다. 282명의 대학생으로부터 얻은 자료를 요인분석한 결과, 6요인 모형이 지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동기를 측정하는 척도에 관한 연구 이외에, 위에서 기술한대로, 음주동기가 음주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도 진행되었다. 그러나 음주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인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매우 드문 실정이다. Cox와 Klinger(1988)는 성격특성, 사회문화적 영향, 음주에 대한 과거의 강화 등의 역사적 요인과 상황적 요인 및 긍정, 부정적 유인 등의 현재 요인들이 음주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인이라고 가정하였다. Cooper 등(1995)은 음주동기 요인에 따라 음주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인이 다를 수 있다고 가정하였으며, 연구결과 사회, 정서적 고양에 대한 기대와 긍정적 정서상태가 고양동기에 영향을 미치며, 긴장감소에 대한 기대, 부적인 정서상태 및 회피적 대처양식은 대처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음주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인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변인으로서 Cox와 Klinger가 가정하였듯이 개인의 성격특성 변인을 포함하였다. 개인의 성격특성에 따라 술을 마시는 이유에서 차이가 있을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외향성이 강한 사람은 다른 이유보다도 사교적인 이유 때문에 술을 마실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또한 개인이 대학생활을 하면서 겪는 다양한 갈등 경험도 음주동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갈등 유형에 따라 술을 마시는 이유에서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학교내 친구문제에 의한 갈등을 경험한 경우 친구로부터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즉, 동조 요인) 술을 마실 수 있는 반면에 부모나 이성간의 문제로 인해 갈등을 경험한 경우 걱정거리를 잊기 위해서(즉, 정서적 대처 요인) 술을 마시려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성격특성으로서 최근 많이 논의되고 있는 5요인(big five)성격특성과 A유형 성격을 포함하였고, 대학생활을 하면서 겪게되는 갈등경험은 한덕웅, 전경구, 탁진국, 이창호 및 이건효(1993)가 개발한 생활사건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성격특성과 생활사건이 대학생의 음주동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생활사건은 개인의 주변 환경 요인에 의해 경험하게 되는 변인이며 성격특성은 개인차 변인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

에서는 개인의 환경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생활사건이 개인차 변인인 성격특성이 음주동기를 설명하는 부분 이상의 추가변량을 설명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 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조사대상자 및 절차

이 연구는 서울시내 소재 대학에서 심리학 교양 과목을 수강하는 대학생 4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 다. 수업시간 중에 설문지를 나누어주고 응답하게 하 였으며, 소요 시간은 약 20분이었다. 전체 조사대상자 가운데 남학생이 213명(53.3%)이었고, 1학년생이 가 장 많았다(190명; 47.5%). 전공은 인문, 사회대가 가 장 많았으며(224명; 56.1%), 공대(116명, 29%)와 이과 대(60명; 15%)도 골고루 포함되었다.

측정도구

음주동기

하정과 탁진국(1998)이 Cooper(1994)의 음주동기 척도 20문항과 Simons 등(1994)의 사고 확장 요인 5 문항, 그리고 Newcomb 등(1988)의 약물척도중 중독 요인 3문항을 습관 요인으로 수정, 번안하여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사고(6문항), 사고의 확장(6문항), 정서적 대처(4문항), 기분의 고양(5문항), 습관(3문항) 및 동조(4문항)의 여섯 가지 음주동기 요 인을 측정하는 28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사대 상자는 각 문항이 제시하는 이유 때문에 술을 마시는 경우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를 5점 척도(1: 거의 없다; 5: 항상 그렇다)로 구성된 각 문항에 대해 답하였다.

본 연구에서 음주동기 척도에 대해 공통요인분석 모형의 하나인 주축분해법을 사용하여 요인분석을 실 시한 결과, 하정과 탁진국(1998)의 연구에서와 동일하 게 위의 6개 요인이 추출되었다. 전체 척도의 신뢰도 계수인 Cronbach alpha는 .89였다. 각 음주동기 요인 별 문항수와 내적일관성계수인 alpha계수는 다음과

같다: (1) 사고(6문항) = .86; (2) 사고의 확장(6문항) = .82; (3) 정서적 대처(4문항) = .84; (4) 기분의 고양 (5문항) = .83; (5) 습관(3문항) = .79; (6) 동조(4문항) = .62. 각 요인에서의 점수가 높을수록 그 이유 때문 에 술을 마시는 경향이 높음을 의미하도록 점수화되 었다.

본 연구에서 사고 요인은 전체 변량의 14.2%를 설명하였고, 사고의 확장 요인은 11.3%, 정서적 대처 요인은 9%, 기분의 고양 요인은 7.9%, 습관 요인은 6.3%, 그리고 동조 요인은 5.2%를 설명하였다.

성격특성

개인의 성격특성은 최근 많이 논의되고 있는 5 요인 모형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유태용과 김명언 및 이도형(1997)이 개발한 5요인 성격점사 가운데 각 요인별로 요인계수가 높은 5개 문항을 선택하여 사용 하였다. 5 요인은 외향성, 정서적 안정성, 호감성, 성 실성, 그리고 이지성을 나타낸다. 모든 문항은 5점 Likert척도(1: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5: 전적으로 동 의한다)를 이용하여 측정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외 향적이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타인에게 호감을 주고, 성실하며, 이지적인 성향이 높음을 의미하도록 점수화되었다. 본 연구에서 외향성 요인의 내적일관 성 계수인 alpha계수는 .79, 정서적 안정성 요인의 alpha계수는 .70, 호감성 요인의 alpha계수는 .58, 성 실성 요인의 alpha계수는 .76, 그리고 이지성 요인의 alpha계수는 .77이었다.

이밖에 유희정(1990)이 번안하여 사용한 A유형 행동점사를 사용하여 A유형 성격을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5점 척도(1: 전 혀 동의하지 않는다, 5: 전적으로 동의한다)를 사용하 여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A유형이 강한 것 으로 해석되도록 점수화되었다. 이 척도의 alpha계수 는 .56이었다.

생활사건

본 연구에서 생활사건은 한덕용, 전경구, 탁진국, 이창호 및 이건효(1993)가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5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5: 전적으로 그렇다)를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각 변인에서 갈등을 많이 겪었음을 나타내도록 점수화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17개 생활사건 변인의 문항수와 alpha계수는 다음과 같다: (1) 입학시 갈등(3문항: $\alpha = .69$); (2) 소속대학 적응(4문항: $\alpha = .77$); (3) 학교내 교우관계(3문항: $\alpha = .78$); (4) 학교밖 교우관계(3문항: $\alpha = .92$); (5) 학업동기(3문항: $\alpha = .85$); (6) 장래진로(3문항: $\alpha = .83$); (7) 교수관계(3문항: $\alpha = .62$); (8) 전공학과 적응(4문항: $\alpha = .85$); (9) 경제문제(3문항: $\alpha = .87$); (10) 여가활동(3문항: $\alpha = .82$); (11) 학습방법(2문항: $\alpha = .92$); (12) 학업성적(3문항: $\alpha = .68$); (13) 가치관(3문항: $\alpha = .87$); (14) 부모관계(3문항: $\alpha = .79$); (15) 이성문제(3문항: $\alpha = .82$); (16) 흡연문제(3문항: $\alpha = .93$); (17) 운동문제(3문항: $\alpha = .93$).

분 석

성격특성과 생활사건이 음주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과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본 연구에서 사용된 모든 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표 1에서 보듯이 생활사건 가운데 교수관계 변인의 평균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운동문제와 장래진로의 순이었다. 이 결과는 대학생활에서 학생과 교수간의 인간관계가 매우 부족하고, 학생들의 운동량이 부족하며, 장래진로에 대한 걱정이 매우 큼을 말해준다. 음주동기 요인 중에서는 사고 요인의 평균이 가장 높았고 습관 요인의 평균이 가장 낮아서, 대학생들의 경우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술을 마시는 경향이 가장 높았고, 습관 때문에 술을 마시는 경향은 가장 낮았다.

성격특성 변인 및 생활사건 변인과 음주동기간의 상관관계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표 2에서 보듯이 성격특성에 따라 술을 마시는 이유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A형 성격유형일수록 사고의 확장, 정서적 대처, 그리고 습관 때문에 술을 마시는 경향이 있었다. 외향적인 사람은 사고, 사고의 확장, 기분의 고양 때문에 술을 마시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고와 가장 크게 관련된 성격특성은 외향성으로서, 다른 사람과 어울리기 위해서 술을 마시는

표 1
각 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

변 인	평균	표준편차	변 인	평균	표준편차	변 인	평균	표준편차
성격변인						음주동기		
A형 성격	3.22	.59	장래진로	3.27	1.09	사 교	3.81	.68
외 향 성	3.36	.74	교수관계	3.86	.90	사고확장	1.85	.66
정서안정성	3.34	.66	학과적응	2.77	1.06	정서대처	2.32	.92
호 감 성	3.41	.54	경제문제	2.52	1.03	기분고양	2.65	.85
성 실 성	3.22	.69	여가활동	2.81	.99	습 관	1.69	.83
이 지 성	3.03	.77	학습방법	2.97	1.04	동 조	2.30	.70
생활사건			학업성적	2.94	.82			
입학갈등	3.23	1.00	가 치 관	2.78	1.11			
대학적응	3.16	.83	부모관계	2.14	.93			
교내친구	2.09	.88	이성문제	1.73	.92			
교외친구	1.57	.84	흡연문제	1.61	1.07			
학업동기	3.19	1.03	운동문제	3.43	1.10			

표 2

성격특성 및 생활사건과 음주동기간의 상관

변 인	사 교	사고의확장	정서적대처	기분의고양	습 관	동 조	음주동기 전체
A형 성격	.07	.16**	.16**	.07	.11*	.09	.16**
외 향 성	.34**	.15**	.15**	.22**	.06	-.05	.24**
정서안정성	.10	.07	.25**	.21**	.03	.16**	.21**
호 감 성	.14**	.11*	.08	.09	-.00	.04	.12*
성 실 성	.02	.04	-.07	-.06	-.09	-.11*	-.06
이 지 성	-.04	.16**	.06	-.02	.03	-.06	.04
입학갈등	.00	.06	.07	.06	.05	.16**	.10
대학적응	-.07	.06	.05	-.01	-.00	.17**	.04
교내친구	-.23**	.06	.03	-.01	.09	.17**	.01
교외친구	-.18**	.03	.02	-.06	.05	.12*	-.02
학업동기	.15**	-.00	.08	.10	.08	.17**	.14**
장래진로	.07	-.02	.05	.06	.05	.18**	.09
교수관계	.04	-.12*	-.11*	-.05	-.08	.00	-.08
학과적응	.06	.08	.11*	.13*	.12*	.19**	.17**
경제문제	-.06	.05	.02	-.03	.13*	.09	.04
여가활동	-.05	-.06	.06	-.05	-.01	.15**	.01
학습방법	.01	-.01	.03	.03	.07	.19**	.07
학업성적	.02	.05	-.00	.08	.07	.11*	.08
가 치 관	.05	.03	.10	.03	.04	.14**	.09
부모관계	.03	.12*	.24**	.18**	.18**	.24**	.24**
이성문제	-.04	.13*	.16**	.09	.14**	.08	.13*
흡연문제	.06	.26**	.27**	.29**	.44**	.15**	.35**
운동문제	-.04	.00	.05	.06	.10*	.12*	.06

주. * $p < .05$ ** $p < .01$

사람의 성격은 무엇보다도 외향적일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정서적 안정성은 정서적 대처, 기분의 고양, 및 동조와 유의하게 관련되었다. 이는 정서적으로 안정되지 못한 사람일수록 걱정거리를 잊기 위해서, 기분이 좋아지기 위해서, 그리고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 술을 마시는 경향이 있음을 말해준다. 특히 정서적 대처와 가장 크게 관련된 성격특성은 정서적 안정성으로서 이는 평소에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은 다른 이유보다도 걱정거리를 잊기 위해서 술을 마시는 경향이 있음을 말해주는 결과이다.

호감성은 사고 및 사고의 확장 요인과 유의하게 관련되었다. 즉 타인을 존중하고 모나지 않는 성격일

수록 사고 및 사고의 확장 때문에 술을 마시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실성은 동조하고만 유의하게 관련되어, 성실한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의 권유 때문에 할 수 없이 술을 마시는 경향은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지성은 사고의 확장과만 유의하게 관련되었다. 이지적인 성향이 높은 사람일수록 다른 이유보다도 경험의 폭을 넓히고 자신을 더 잘 알기 위해서 술을 마시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사건과 음주동기간의 관계에서(표 2 참조) 생활사건 변인 가운데 음주동기 요인과 관련이 깊게 나타난 변인은 학과적응, 부모관계, 이성문제, 그리고 흡연문제이었다. 특히 흡연문제는 음주동기 전체 및 각 요인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었다. 흡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일수록 다양한 이유 때문에 음주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부모관계 또한 사고를 제외한 다른 모든 요인과 유의하게 관련된 것으로 나타나 부모와의 갈등문제가 술을 마시려는 동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각 음주동기 요인별로 나누어서 분석해보면, 먼저 대부분의 생활사건 변인은 사고 요인과는 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내친구, 교외친구 및 학업동기를 제외하고 모든 생활사건 변인은 사고 요인과 유의하게 관련되지 않았다. 교내 및 교외 친구관계가 사고 요인과 부적으로 유의하게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교내, 외 친구관계가 원만할수록 친구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는 동기가 있음을 말해주는 결과이다. 대부분의 생활사건 변인은 사고의 확장, 정서적 대처, 기분의 고양, 그리고 습관 요인과는 크게 관련되지 않았다. 사고의 확장과 유의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변인은 전체 17개 생활사건 변인가운데 교수관계, 부모관계, 이성문제 및 흡연문제였다. 정서적 대처와 유의하게 관련된 변인은 교수관계, 학과적응, 부모관계, 이성문제 및 흡연문제였다. 기분의 고양과 유의하게 관련된 변인은 학과적응, 부모관계, 및 흡연문제였으며, 습관과 유의하게 관련된 변인은 학과적응, 경제문제, 부모관계, 이성문제 및 흡연문제였다. 전체적으로 학과적응, 부모관계, 이성문제, 그리고 흡연문제 등의 변인이 공통적으로 유의하게 관련된 변인이었으며, 이 가운데 흡연문제가 이들 음주동기 요인과 가장 크게 관련되었다. 대부분의 생활사건 변인은 동조 요인과는 유의하게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

성격특성과 생활사건 변인 가운데 어떤 변인이 음주동기 요인을 예언하는데 유의하게 기여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성격특성과 생활사건 변인을 예언변인으로, 음주동기 요인을 준거변인으로 두고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표 3의 결과를 보면 전반적으로 성격특성과 생활사건 변인 모두 음주동기 요인을 설명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예언 변인 가운데 흡연문제가 음주동기 요인을 설명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사고 요인을 설명하는데 있어서는 외향성이 가장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다고 학업동기, 교내친구, 교외친구 및 대학적응 변인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의 확장 요인에서는 흡연문제가 가장 중요한 예언 변인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성격변인으로서 이지성과 호감성이 사고의 확장 요인을 설명하는데 유의하게 기여하였다. 정서적 대처를 설명하는데 있어서는 흡연문제가 가장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정서적 안정성, 부모관계, 외향성, 그리고 교수관계 변인이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분의 고양을 설명하는데 있어서는 흡연문제 이외에 정서적 안정성, 외향성, 그리고 부모관계가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습관은 흡연문제 한 변인만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동조에서는 성격특성 변인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고, 생활사건 변인 가운데 부모관계, 입학갈등, 교외친구, 그리고 학습방법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의 성격특성에 따라 술을 마시는 이유가 다르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는 결과는 위의 상관분석에서 기술한 바 있다. 성격특성이 음주동기를 설명하는 부분 이상의 의미 있는 추가변량을 생활사건이 설명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 단계에서 성격특성 변인을 집어넣고 2 단계에서는 17개 생활사건 변인을 집어넣은 뒤, 각 음주동기 요인을 설명하는 변량이 의미 있게 증가하는지를 알아보았다. 표 4에서 보듯이 성격특성 변인은 습관을 제외한 다른 음주동기 요인을 유의하게 설명하였다. 특히 사고 요인을 가장 많이 (16%) 설명하였다. 2 단계에 생활사건 변인을 회귀방정식에 투입했을 때 성격특성과 생활사건 변인은 모든 음주동기 요인을 유의하게 설명하였다. 여전히 사고 요인을 가장 많이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2 단계에서 생활사건을 투입했을 때 음주동기의 설명변량이

표 3

성격특성과 생활사건이 음주동기 요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단계적 중다회귀분석

사 교	R ²	사교의확장	R ²	정서적대처	R ²	기분의고양	R ²	습 관	R ²	동 조	R ²
외 향 성	.12	흡연문제	.07	흡연문제	.08	흡연문제	.08	흡연문제	.20	부모관계	.05
학업동기	.16	이 지 성	.10	정서안정	.14	정서안정	.12			입학갈등	.07
교내친구	.19	호 감 성	.12	부모관계	.17	외 향 성	.16			교외친구	.08
교외친구	.21			외 향 성	.19	부모관계	.17			학습방법	.10
대학적용	.22			교수관계	.20						

표 4

성격특성과 생활사건이 음주동기 요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변 인	사 교	사교의확장	정서적대처	기분의고양	습 관	동 조
1 단계						
성격특성변인	.16**	.07**	.12**	.11**	.02	.05*
2 단계						
생 활 사 건	.26**	.17**	.23**	.22**	.25**	.16**
R ² 변화	.10**	.10**	.11**	.11**	.23**	.11**

주. 1 단계에서의 값은 성격특성 변인을 집어넣었을 때의 R²를 나타내고, 2 단계에서의 값은 생활사건 변인을 두번째로 투입했을 때 성격특성과 생활사건이 음주동기 요인을 설명하는 R²이며, R²변화값은 생활사건을 투입했을 때 R²값이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나타냄.

* $p < .05$, ** $p < .01$.

얼마나 증가하였는지를 알아본 결과, 표 4에서 보듯이, 모든 6개 음주동기 요인에서 R²값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습관 요인의 경우 추가로 증가한 설명변량은 23%였다. 이 결과는 생활사건이 음주동기를 설명할 때 성격특성 변인 못지 않게 중요함을 말해주는 것이다.

논 의

본 연구는 개인의 성격특성과 생활사건이 음주동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먼저 생활사건의 평균을 보면 교수관계 변인의 값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운동문제와 장래진로의 순이었다. 이 결과는 전국 대학생을 대

상으로 실시한 한덕웅 등(1993)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것으로서 이들의 연구에서도 교수와의 인격적 관계와 운동문제가 각각 두 번째와 세 번째로 평균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활에서 학생과 교수간의 인간적 관계 형성이 매우 부족하며 대학생들이 건강유지를 위해 필요한 운동을 잘 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교수와 학생간의 관계 형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학 신입생으로 입학했을 때 지도교수를 배정하고, 지도교수는 의무적으로 한 학기에 한 번 정도 학생들과 상담하게 하며 졸업할 때까지, 그리고 졸업 후에도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게 하는 평생 지도교수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음주동기 요인의 평균에서는 사교 요인의

평균이 다른 요인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고 습관 요인의 평균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신행우(1998)의 연구에서도 사고 요인의 평균이 가장 높게 나타나, 국내 대학생이 술을 마시는 주요 이유는 남과 어울리기 위해서인 것으로 말할 수 있다. 습관 요인의 평균이 가장 낮게 나타난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아직 국내 대학생 가운데 알코올 중독자와 같이 습관적으로 술을 마시는 학생은 많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음주동기와의 관련성에서는 성격특성에 따라 술을 마시는 이유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외향적이고 남에게 호감을 주는 사람일수록 남과 어울리기 위해서 술을 마시는 경향이 있었고, 정서적으로 안정되지 못한 사람일수록 걱정거리를 잊거나 기분이 좋아지기 위해서 술을 마시는 경향이 있었으며, 이치적인 사람일수록 경험의 폭을 넓히고 자신을 잘 알기 위해서 술을 마시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의 성격특성과 음주동기간의 관계에 관한 과거의 경험적 연구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관계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다. 그러나 개인의 성격특성에 따라 술을 마시는 이유가 다르게 나타난 본 연구결과는 음주동기를 이해하는 폭을 넓히는데 기여한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생활사건 변인 가운데 음주동기 요인과 관련이 깊게 나타난 변인은 학과적응, 부모관계, 이성문제, 그리고 흡연문제였다. 특히 흡연문제는 음주동기 전체 및 각 요인과의 상관 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즉 담배를 많이 피워 갈등을 겪는 학생일수록 음주동기가 높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흡연문제는 습관 요인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나타나, 흡연문제가 바람직하지 않은 음주동기가 형성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음주동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담배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흡연문제 다음으로 음주동기와 관련이 깊은 것으로 나타난 생활사건은 부모관계였다. 부모관계는 사고를 제외하고 음주동기 전체를 포함한 다른 모든 요

인과 유의하게 관련되었다. 즉 부모와 의견충돌이 잦고 갈등이 심할수록 술을 마시려고 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부모와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어렵더라도 먼저 부모와 대화를 시도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전반적으로 생활사건은 여러 음주동기 요인 가운데 동조 요인과 유의하게 관련된 경우가 많았다. 다양한 생활사건으로 인해 갈등이 심할수록 개인은 자기가 특별히 원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으로부터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 술을 마시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단계적 회귀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성격특성과 생활사건 변인은 음주동기 요인을 설명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요인을 설명하는데 유의하게 기여하는 변인은 다소 차이가 있었다. 전체 예언 변인 가운데 흡연문제가 음주동기 요인을 설명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문제는 6개 음주동기 요인 가운데 사고와 동조를 제외한 나머지 요인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부모관계도 정서적 대처, 기분의 고양, 동조 요인을 유의하게 설명하였다. 성격변인 중에서는 외향성이 음주동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사고 요인을 설명하는데 있어서는 모든 선행 변인 가운데 외향성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남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술을 마시는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개인의 외향적인 특성이 큰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성격특성이 음주동기를 설명하는 부분 이상의 의미 있는 추가변량을 생활사건이 설명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결과, 생활사건을 성격특성 다음의 2 단계에 집어넣었을 때 모든 6개 음주동기 요인에서 R^2 값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이는 대학생들이 생활하면서 경험하는 갈등 상황이 음주동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이 왜 술을 마시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성격특성 이외에 개인이 경험하는 갈등 사건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음주동기 요인은 하정과 탁진국

(1998)에서와 같은 6개의 요인이 그대로 추출되었다. 하정과 탁진국의 연구에서도 본 연구에서와 같이 사고, 사고의 확장, 정서적 대처, 기분의 고양, 습관, 그리고 동조의 6개 요인이 추출되었다. 신행우(1998)는 국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Cooper(1994)의 4요인 모형의 적합성이 지지됨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에서 6요인 음주동기 모형이 지지됨에 따라 국내 상황에서도 6요인 모형도 적합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음주동기 요인에서 6요인 모형에 추수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음주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인에 관한 경험적 연구가 매우 드문 실정을 고려할 때 본 연구는 이 분야에 대한 경험적 연구결과를 제시함으로써 음주동기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데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의 연구대상은 특정 학교의 대학생으로 한정되었기 때문에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제한점을 갖는다. 음주동기에 관한 주제를 체계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표집하여 유사한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남,녀별로 따로 구분하지 않고 분석하였다. 남,녀에 따라 음주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추후 연구에서는 남, 녀별로 많은 인원을 표집하여 따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음주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인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성격특성과 생활사건만을 다루었다. 음주동기의 선행변인에 관한 연구가 부족함을 고려할 때 이들 변인 이외에 다른 변인을 추가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성격특성과 생활사건이 음주동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초점을 두었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변인들이 음주동기뿐 아니라 음주량, 음주빈도 및 음주문제 등의 음주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박영숙, 표미자, 김정선(1995). 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적, 심리적 요인에 관한 비교문화적 연구. *이화의 대지*, 18, 399-409.
- 신행우(1998). 성격과 음주 동기가 음주문제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유태용, 김명언, 이도형(1997). 5요인 성격검사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 산업 및 조직*, 10, 85-102.
- 유희정(1990). 관상동맥성 심장병 환자의 심리적 특성 -정신병적 경향성과 반응성.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하정, 탁진국(1998). 음주동기척도의 표준화에 관한 연구. *광운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학생생활연구*, 9, 57-79.
- 한덕웅, 전점구, 탁진국, 이창호, 이건효(1993). 생활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생활사건과 개인차변인. *성균관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학생지도연구*, 10, 1-35.
- Cooper, M. L. (1994). Motivation for alcohol use among adolescents: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four-factor model. *Psychological Assessment*, 6, 117-128.
- Cooper, M. L., Frone, M. R., Russell, M., & Mudar, P. (1995). Drinking to regulate positive and negative emotions: A motivational model of alcohol us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9, 990-1005.
- Cooper, M. L., Russell, M., Skinner, J. B., & Windle, M. (1992).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three-dimensional measure of drinking motives. *Psychological Assessment*, 4, 123-132.
- Cox, M., & Klinger, E. (1998). A motivational model of alcohol use.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7, 168-180.
- Cutter, H. S. G., & O'Farrell, T. J. (1984). Relationships between reasons for drinking and

- customary drinking behavior.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45, 321-325.
- Farbor, P. D., Khavari, K. A., & Douglass, F. M. (1980). A factor analytic study of reasons for drinking: Empirical validation of positive and negative reinforcement dimension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8, 780-781.
- Newcomb, M. D., Chou, C., Bentler, P. M., & Huba, G. J. (1988). Cognitive gender differences and predictors of change in drug us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5, 426-438.
- Simons, J., Correia, C. J., Carey, K. B., & Borsari, B. E. (1998). Validating a five-factor marijuana motives measure: Relations with use, problems, and alcohol motiv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5, 265-273.
- Stewart, S. H., Zeitlin, S. B., & Samoluk, S. B. (1996). Examination of a three-dimensional drinking motives questionnaire in a young adult university student sample. *Behavior Research and Therapy*, 34, 61-71.

The Effects of Personality Traits and Life Events on Drinking Motives

Tak, Jinkook

Kwangwoon University

This study was intended to study the effects of individuals' personality traits and life events on drinking motives. Personality traits were measured using Type A personality and big-five personality factors (extroversion, emotional stability, agreeableness, conscientiousness, and intellect) and life events were measured using 17 conflict life events. Correlational analyses, based on the data from 400 university students, showed that personality traits and life events were related to drinking motives. Stepwise regression analyses, with personality traits and life events as predictors, showed that personality traits and life events predicted drinking motives. Among all the predictors, a smoking problem had the largest effect on explaining drinking motives.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examine if life events contribute a significant amount of incremental variance to the prediction of drinking motives after entering personality traits first. Results showed that life events added a significant amount of incremental variance to the prediction of all six factors of drinking motives.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 results and suggestions for future study were discussed.